현대오일뱅크, 평화적 임금협상 성공

노사, 임금문제 회사에 일괄 위임 … 무파업 선언으로 생산성 향상도

현대오일뱅크가 평화적으로 입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현대오일뱅크(대표 서영태) 노사는 1월12일 서울 본사에서 2011년 임금위임 및 무파업 선언식을 열고 2011년 임금협상을 회사에 일괄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모두가 필수유지인원이 되는 업무 협정서를 제출했다.

필수유지인원은 파업이 발생해도 생산설비 가동과 운영에 투입되는 근무자로, 모든 조합원이 필수유지인원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파업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현대오일뱅크 노조가 회사에 임금협상을 위임한 것은 1988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노조는 1월10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협상안을 결의했다.

회사도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으로서 임금위임과 무파업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 보인 모습에 깊은 신뢰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오갑 사장은 “현대중공업 가족이 되고 처음 맞는 새해부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임금위임과 무파업을 선언해 준 노조와 대의원께 경의를 표하고,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종업원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1/12>